

4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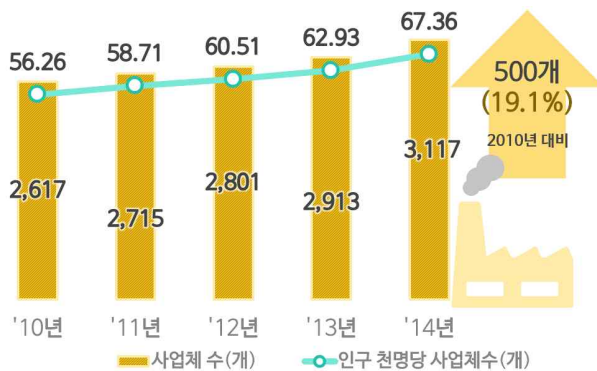
1)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기타]

2014년 기준 사업체수 3,117개, 종사자수 16,0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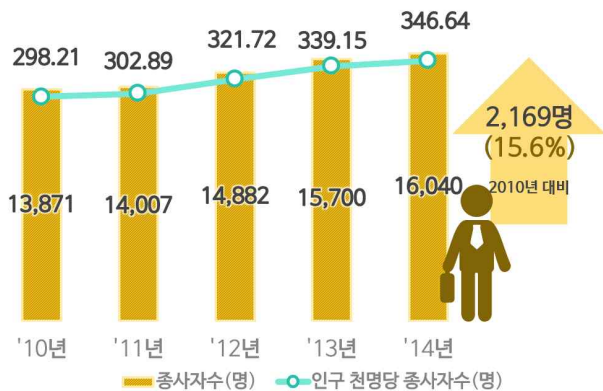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사업체수는 3,117개로 전년보다 204개(7.0%)증가, 종사자수는 16,040명으로 전년보다 340명(2.2%) 증가

- 2010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500개(19.1%), 종사자수는 2,169명(15.6%) 증가
-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는 67.36개로 2010년에 비해 11.1개 증가
-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는 346.64명으로 2010년에 비해 48.43명 증가

〈그림 4-1〉 사업체수



〈그림 4-2〉 종사자수



〈표 4-1〉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개, 명)

	사업체 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종사자수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2010년	2,617	56.26	13,871	298.21
2011년	2,715	58.71	14,007	302.89
2012년	2,801	60.51	14,882	321.72
2013년	2,913	62.93	15,700	339.15
2014년	3,117	67.36	16,040	346.64

자료: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2) 경제활동인구 총괄 기타

2016년 상반기 경제활동참가율 65.8%, 고용률 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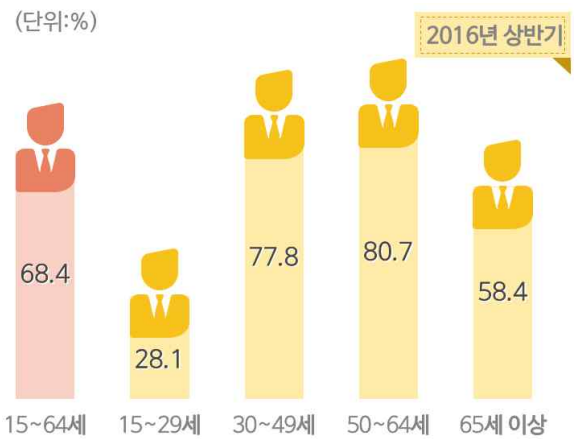
○ 2016년 상반기 「경제활동인구」는 22.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8천명(3.4%)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5.8%로 전년동기대비 2.4%p 감소
- 「고용률」은 64.7%로 전년동기대비 2.5%p 감소

〈그림 4-3〉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그림 4-4〉 연령별 고용률



〈표 4-2〉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남자	여자	고용률	15~64세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실업자	실업률
2012 1/4	33.1	21.1	63.8	72.4	56.0	63.2	...	...	...	...	...	0.2*	1.0*
2012 2/4	33.5	22.2	66.2	75.6	57.8	65.8	...	...	...	...	...	0.1*	0.7*
2012 3/4	33.9	22.2	65.5	74.9	57.0	65.0	...	...	...	...	...	0.2*	0.8*
2012 4/4	34.2	21.9	64.1	73.9	55.7	63.7	...	...	...	...	...	0.1*	0.7*
2013 1/2	34.2	22.0	64.5	73.6	56.3	63.7	70.5	32.2	81.1	80.0	51.3	0.3*	1.1*
2013 2/2	34.2	22.4	65.5	73.6	58.3	64.7	70.5	32.2	81.5	79.7	54.3	0.3*	1.2*
2014 1/2	34.5	22.5	65.3	74.8	56.8	64.7	70.4	29.8	81.4	81.4	54.4	0.2*	0.9*
2014 2/2	34.4	22.8	66.2	73.1	60.0	65.8	71.7	26.7	83.8	83.6	55.2	0.1*	0.6*
2015 1/2	34.4	23.4	68.2	76.0	61.1	67.2	71.6	26.0	83.0	84.7	59.5	0.3*	1.4*
2015 2/2	34.4	22.8	66.1	72.8	60.1	65.8	69.9	26.7	81.1	82.5	58.7	0.1*	0.3*
2016 1/2	34.4	22.6	65.8	72.8	59.5	64.7	68.4	28.1	77.8	80.7	58.4	0.4*	1.7*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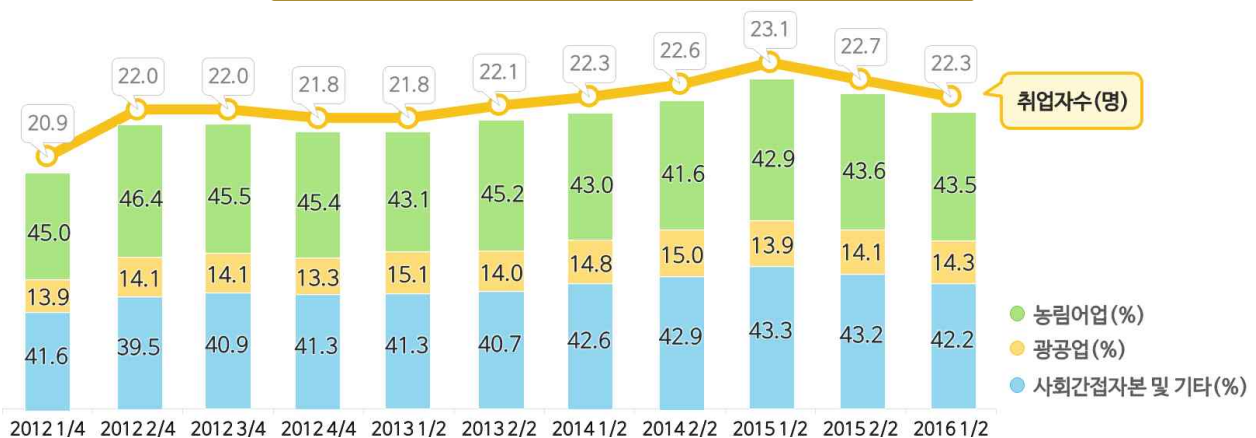
주. 상대표준오차(C.V.)가 높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 표시

3)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기타]

2016년 상반기 「취업자」는 22.3천명, 「농림어업(43.5%)」이 가장 많아

- 2016년 상반기 취업자는 22.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2015년 상반기) 0.8천명(3.5%) 감소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는 「농림어업」 43.5%, 「광공업」 14.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2.2%,로 나타남
 -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구성비는 「농림어업」 0.6%p, 「광공업」 0.4%p, 「도소매·숙박음식」은 0.5%p 증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0.3%p 감소함

〈그림 4-5〉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표 4-3〉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단위: 천명, %)

	취업자 수 (천명)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도소매·숙박음식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2012 1/4	20.9	45.0	13.9	41.6	14.8	15.3
2012 2/4	22.0	46.4	14.1	39.5	14.1	14.5
2012 3/4	22.0	45.5	14.1	40.9	13.2	16.4
2012 4/4	21.8	45.4	13.3	41.3	13.3	15.6
2013 1/2	21.8	43.1	15.1	41.3	13.8	15.1
2013 2/2	22.1	45.2	14.0	40.7	13.1	15.8
2014 1/2	22.3	43.0	14.8	42.6	12.6	17.5
2014 2/2	22.6	41.6	15.0	42.9	12.8	18.6
2015 1/2	23.1	42.9	13.9	43.3	13.4	18.2
2015 2/2	22.7	43.6	14.1	43.2	13.2	18.9
2016 1/2	22.3	43.5	14.3	42.2	13.9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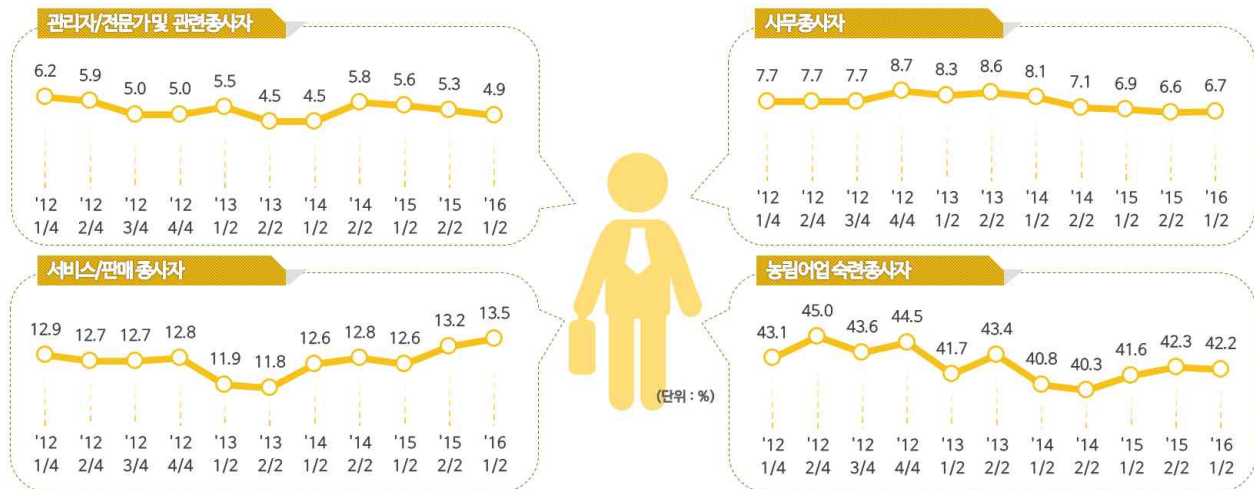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4)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기타]

2016년 상반기 직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42.2%로 가장 많아

- 2016년 상반기 전체 취업자 22.3천명 중 직업별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가장 많고, 「기능,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8.4%)」, 「단순노무종사자(14.3%)」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는 전년동기대비(2015년 상반기) 「서비스, 판매 종사자(0.9%p)」, 「농림어업 숙련종사자(0.6%p)」 증가한 반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0.7%p)」, 「사무종사자(0.2%p)」,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1%p)」는 감소함

〈그림 4-6〉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표 4-4〉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단위: 천명, %)

	취업자 수 (천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2 1/4	20.9	6.2	7.7	12.9	43.1	17.2	12.9
2012 2/4	22.0	5.9	7.7	12.7	45.0	16.8	12.3
2012 3/4	22.0	5.0	7.7	12.7	43.6	18.2	13.2
2012 4/4	21.8	5.0	8.7	12.8	44.5	17.4	11.0
2013 1/2	21.8	5.5	8.3	11.9	41.7	18.3	13.8
2013 2/2	22.1	4.5	8.6	11.8	43.4	18.1	13.1
2014 1/2	22.3	4.5	8.1	12.6	40.8	19.7	14.3
2014 2/2	22.6	5.8	7.1	12.8	40.3	19.0	15.0
2015 1/2	23.1	5.6	6.9	12.6	41.6	19.5	14.3
2015 2/2	22.7	5.3	6.6	13.2	42.3	19.4	13.2
2016 1/2	22.3	4.9	6.7	13.5	42.2	18.4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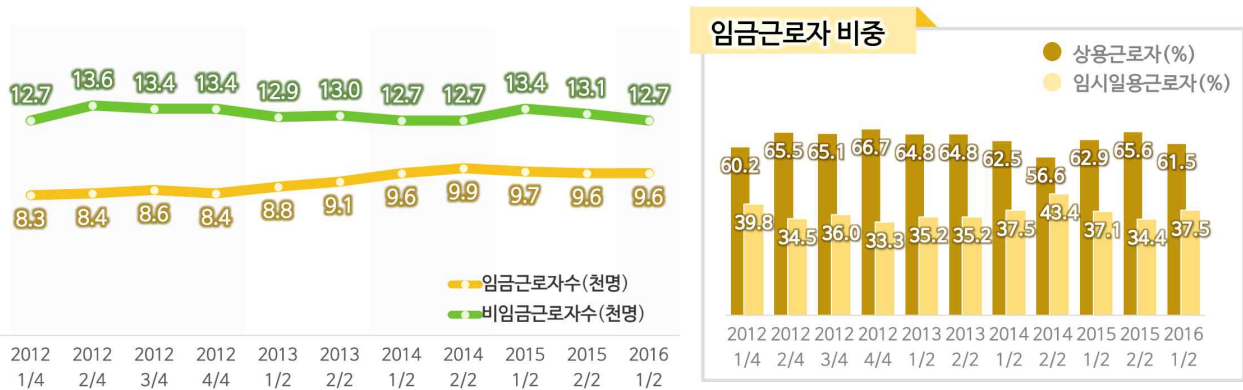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5)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기타]

2016년 상반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61.5%

- 2016년 상반기 전체 취업자 22.3천명 중 임금근로자는 9.6천명, 비임금근로자는 12.7천명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0.1천명(1.0%), 비임금근로자는 0.7천명(5.2%)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61.5%로 전년동기대비 1.4%p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37.5%로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

〈그림 4-7〉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표 4-5〉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단위: 천명, %)

	취업자수 (천명)	임금근로자수 (천명)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	비임금근로자수 (천명)
2012 1/4	20.9	8.3	60.2	39.8	12.7
2012 2/4	22.0	8.4	65.5	34.5	13.6
2012 3/4	22.0	8.6	65.1	36.0	13.4
2012 4/4	21.8	8.4	66.7	33.3	13.4
2013 1/2	21.8	8.8	64.8	35.2	12.9
2013 2/2	22.1	9.1	64.8	35.2	13.0
2014 1/2	22.3	9.6	62.5	37.5	12.7
2014 2/2	22.6	9.9	56.6	43.4	12.7
2015 1/2	23.1	9.7	62.9	37.1	13.4
2015 2/2	22.7	9.6	65.6	34.4	13.1
2016 1/2	22.3	9.6	61.5	37.5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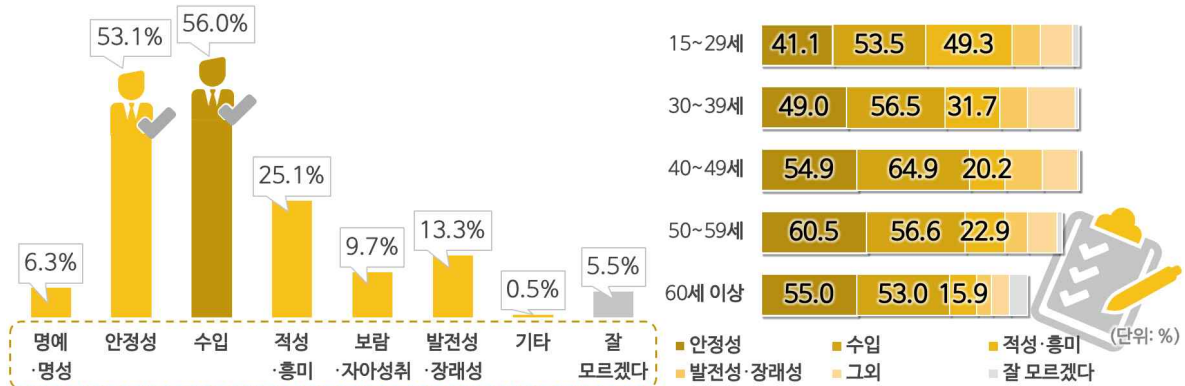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6) 직업 선택의 주 요인(복수응답) 공통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입(56.0%)」

-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입」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성(53.1%)」, 「적성·흥미(25.1%)」, 「발전성·장래성(13.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은 「수입」, 북부권은 「안정성」이 각각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안정성(55.2%)」, 여자는 「수입(56.9%)」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연령별로 「수입」을 제외하면 15~29세는 「적성·흥미」, 그 외 연령대에서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4-8〉 직업 선택의 주 요인



〈표 4-6〉 직업 선택의 주 요인(복수응답)

(단위: %)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기타	잘 모르겠다
2016년	6.3	53.1	56.0	25.1	9.7	13.3	0.5	5.5
중부권	4.4	48.6	54.5	29.4	12.5	10.7	0.8	7.2
북부권	6.8	55.2	52.9	19.5	10.2	11.1	-	8.1
서부권	7.2	58.5	61.2	18.7	8.8	13.0	-	3.7
광주인근권	9.4	54.0	54.6	29.4	2.8	23.1	0.9	1.4
남자	8.5	55.2	55.0	26.0	9.7	14.7	0.9	3.6
여자	4.0	50.9	56.9	24.2	9.7	12.0	-	7.5
15~29세	7.5	41.1	53.5	49.3	9.7	16.4	1.3	3.9
30~39세	9.9	49.0	56.5	31.7	16.3	15.8	1.0	2.0
40~49세	6.2	54.9	64.9	20.2	13.2	21.5	0.9	1.2
50~59세	4.1	60.5	56.6	22.9	12.7	13.1	-	2.9
60세 이상	5.8	55.0	53.0	15.9	4.8	8.2	-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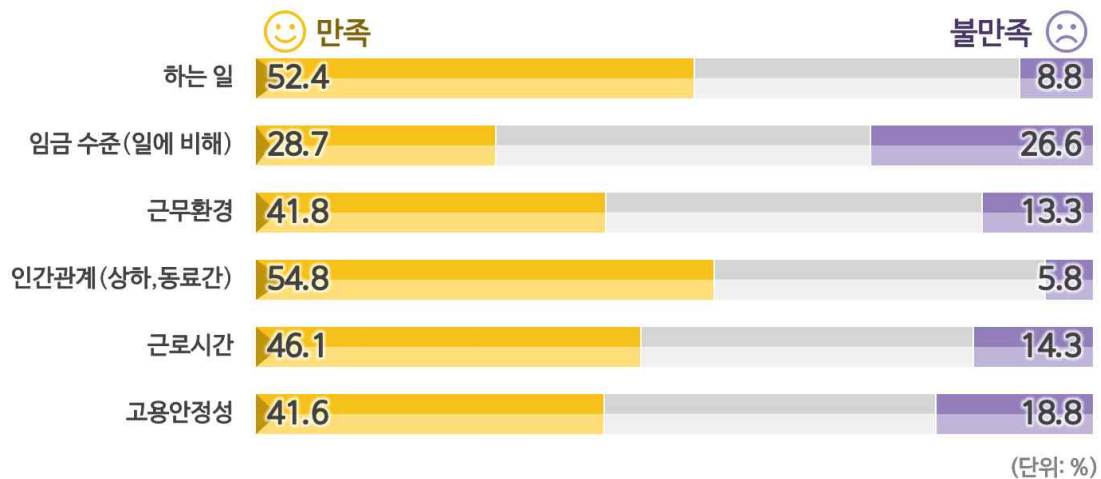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장성군 사회조사

7) 일·직장에 대한 만족도 [공통]

임금근로자는 일·직장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만족(54.8%)」

- 임금근로자는 일·직장생활 부문 중 '인간관계(상하, 동료간)'를 「만족한다(54.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는 일(52.4%)', '근로시간(46.1%)' 순으로 나타남
- '인간관계'와 '하는 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만족」은 50% 이하이고, '임금수준(일에 비해)'가 28.7%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9〉 일·직장에 대한 만족도



〈표 4-7〉 일·직장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계	만족	보통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하 는 일	100.0	52.4	16.4	36.0	38.8	8.8	6.5	2.3
임금 수준(일에 비해)	100.0	28.7	9.3	19.4	44.7	26.6	23.3	3.3
근 무 환 경	100.0	41.8	11.2	30.6	44.8	13.3	10.0	3.3
인간관계(상하,동료간)	100.0	54.8	15.7	39.1	39.4	5.8	3.9	1.9
근 로 시 간	100.0	46.1	14.7	31.3	39.7	14.3	11.5	2.7
고 용 안 정 성	100.0	41.6	16.2	25.5	39.6	18.8	14.7	4.1

자료: 2016년 장성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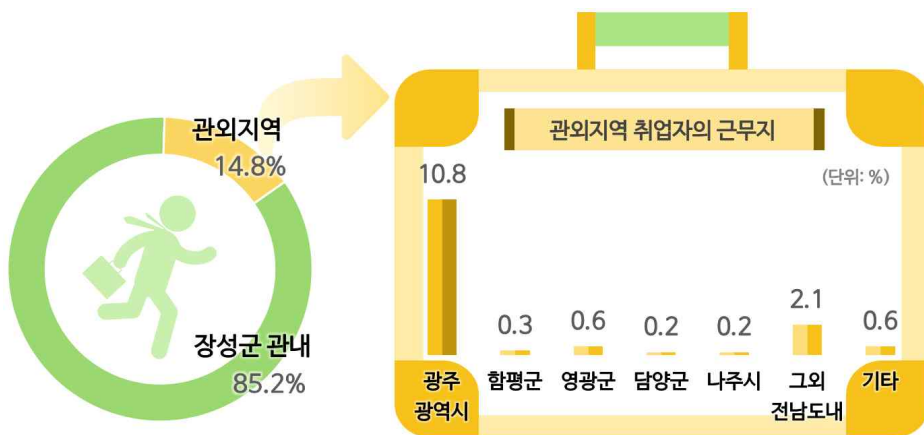
주: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상용직근로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인 사람

8) 취업자의 근무지 특성

취업자의 근무지는 「장성군」 85.2%

- 직업이 있는 응답자의 85.2%는 「장성군」에서 근무하고 있고,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10.8%)」, 「그 외 전남도내(2.1%)」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광주인근권은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장성군 관외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0〉 취업자의 근무지



〈표 4-1〉 취업자의 근무지

(단위: %)

	계	장성군 관내	관외지역	광주광역시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	나주시	그 외 전남도내	기타
2016년	100.0	85.2	14.8	10.8	0.3	0.6	0.2	0.2	2.1	0.6
중부권	100.0	84.3	15.7	13.1	-	-	-	-	1.8	0.8
북부권	100.0	88.5	11.5	9.2	-	-	1.2	-	0.5	0.6
서부권	100.0	88.8	11.2	4.6	0.6	2.1	-	0.6	2.8	0.6
광주인근권	100.0	77.3	22.7	18.0	0.9	-	-	-	3.8	-
남자	100.0	83.3	16.7	11.6	0.4	0.6	0.3	0.3	2.8	0.8
여자	100.0	88.6	11.4	9.5	-	0.7	-	-	1.0	0.3
15~29세	100.0	85.1	14.9	14.9	-	-	-	-	-	-
30~39세	100.0	66.6	33.4	29.4	-	1.0	-	-	1.9	1.0
40~49세	100.0	78.0	22.0	14.9	-	1.0	0.8	-	4.4	0.9
50~59세	100.0	90.5	9.5	3.6	1.2	0.4	-	0.7	2.6	1.0
60세 이상	100.0	95.6	4.4	3.1	-	0.4	-	-	0.9	-
전문/관리	100.0	58.4	41.6	31.7	1.4	1.8	-	-	2.8	3.9
사무	100.0	70.5	29.5	27.2	-	1.0	-	-	1.4	-
서비스/판매	100.0	85.6	14.4	10.6	-	-	-	0.9	2.9	-
농림어업	100.0	99.6	0.4	0.4	-	-	-	-	-	-
기능/노무	100.0	80.1	19.9	10.5	0.6	1.4	0.9	-	5.8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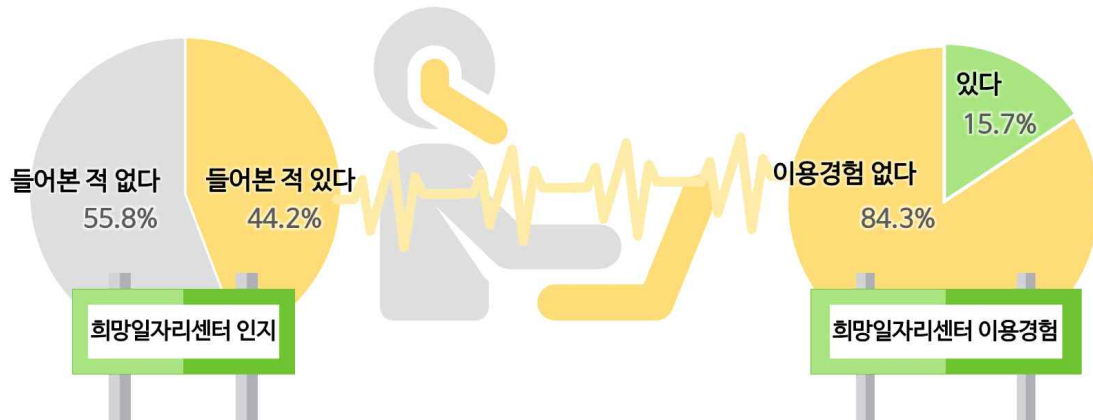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장성군 사회조사
 주: 현재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9)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인지 및 이용 여부 특성

희망일자리센터를 「들어본 적 있다(44.2%)」

-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를 들어본 적 「있다」 44.2%, 들어본 적 「없다」 55.8%임
 - 지역별로 중부권이 들어본 적 「있다」가 51.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북부권이 35.2%로 낮게 나타남
 - 연령별로 희망일자리센터를 들어본 적 「있다」는 40대가 63.4%로 가장 많았고, 30대 53.7%, 50대 51.8% 등으로 나타남
- 희망일자리센터를 들어본 적 있는 응답자 중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15.7%임
 - 지역별로 중부권에서, 연령별로 30대가 「이용경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11〉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인지 및 이용 여부



〈표 4-2〉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인지 및 이용 여부

(단위: %)

	계	들어본 적 있다	희망일자리센터 이용 경험			들어본 적 없다
			소계	있다	없다	
2016년	100.0	44.2	100.0	15.7	84.3	55.8
중부권	100.0	51.8	100.0	18.6	81.4	48.2
북부권	100.0	35.2	100.0	17.4	82.6	64.8
서부권	100.0	42.7	100.0	12.7	87.3	57.3
광주인근권	100.0	35.6	100.0	8.7	91.3	64.4
남자	100.0	43.4	100.0	12.2	87.8	56.6
여자	100.0	45.0	100.0	19.1	80.9	55.0
15~29세	100.0	39.9	100.0	12.7	87.3	60.1
30~39세	100.0	53.7	100.0	23.1	76.9	46.3
40~49세	100.0	63.4	100.0	20.5	79.5	36.6
50~59세	100.0	51.8	100.0	10.5	89.5	48.2
60세 이상	100.0	32.0	100.0	13.8	86.2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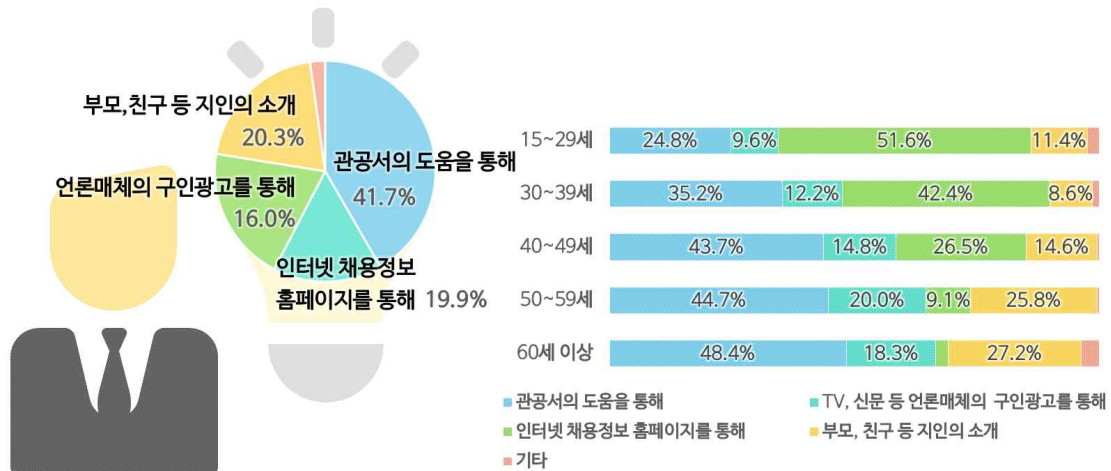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장성군 사회조사

10) 일자리를 찾기 위한 방법 특성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공서의 도움을 통해(41.7%)」

-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41.7%가 「관공서의 도움을 통해(희망일자리 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부모, 친구 등 지인의 소개(20.3%)」, 「인터넷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19.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 북부권, 서부권은 「관공서의 도움을 통해(희망일자리 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 광주인근권은 「TV, 신문 등 언론매체의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연령별로 보면, 15~29세, 30대는 「인터넷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40대 이상은 「관공서의 도움을 통해(희망일자리 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 가 높게 나타남

〈그림 4-12〉 일자리를 찾기 위한 방법



〈표 4-3〉 일자리를 찾기 위한 방법

(단위: %)

	계	관공서의 도움을 통해 (희망일자리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등)	TV, 신문 등 언론매체의 구인광고를 통해	인터넷 채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 친구 등 지인의 소개	기타
2016년	100.0	41.7	16.0	19.9	20.3	2.2
중부권	100.0	37.2	13.3	19.5	26.6	3.4
북부권	100.0	57.1	10.4	12.9	18.2	1.4
서부권	100.0	53.3	12.1	20.9	11.8	1.8
광주인근권	100.0	19.0	35.1	26.6	19.3	-
남자	100.0	39.0	17.5	23.1	18.4	2.0
여자	100.0	44.3	14.4	16.7	22.2	2.4
15~29세	100.0	24.8	9.6	51.6	11.4	2.5
30~39세	100.0	35.2	12.2	42.4	8.6	1.5
40~49세	100.0	43.7	14.8	26.5	14.6	0.4
50~59세	100.0	44.7	20.0	9.1	25.8	0.5
60세 이상	100.0	48.4	18.3	2.5	27.2	3.7

자료: 2016년 장성군 사회조사